

나와 딱 맞는 대학 찾기 논술전형도 전략 필요!



선배들의 전형별 합격기
논술전형 ⑦



최지유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1학년
(경기 행신고 졸업)

최지유씨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과목별 수행을 비롯한 탐구 활동을 성실하게 했다. 학생부 역시 누구보다 충실하다는 칭찬을 들었다. 하지만 아쉬운 내신 성적 때문에 원하는 대학 합격은 요원해 보였다. 고민 끝에 고3 여름방학 때부터 논술전형을 준비했으나 최종 합격까진 이르지 못했고 반수 끝에 논술로 희망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첫 도전에서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듬해 도전할 때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초부터 다시 준비했다는 지유씨. 어마어마한 경쟁률에 주눅 들거나 주위의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한 문장이라도 약척같이 더 써보며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한다.

취재 김원모 리포터 fasciner@naeil.com

Q. 논술전형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기는?

고3 여름방학 때 친구가 저에게 논술에 도전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평소 워낙 글쓰기를 좋아했기에 글을 써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게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도 있기에 준비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급한 마음에 부랴부랴 근처 논술 학원에 등록하긴 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인터넷으로 대학별 기출문제를 찾아 모범 답안을 참고하며 써보는 식으로 준비했어요.

수시로 논술전형 5곳과 종합전형 1곳에 지원했는데

한 곳에서 예비 5번을 받았을 뿐 5개의 논술전형 모두 불합격했고 종합전형으로 지원한 대학만 합격했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는 생각에 반수를 결심, 이듬해 대입에 논술전형으로만 6곳에 지원했고 광운대는 최초 합격, 단국대는 예비 11번을 받아 광운대 국제통상학부를 선택했습니다.

Q. 고교 생활 및 학생부 관리 어떻게 했나?

고등학교 시절 내내 수행평가와 과목별 과제, 탐구 활동 등을 무척 열심히 했어요. 방송부 부팀장을 맡았었고, 교내 각종 글쓰기 대회에도 열심히 참가했는데 '독서 포트폴리오' 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기

“꾸준한 신문 읽기, 논술 준비에 도움”

논술고사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생활과 윤리> <경제> 등 사회탐구 과목에서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최근 화제가 된 이슈와 연관돼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답안을 쓸 때도 배경지식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므로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틈틈이 신문 기사를 읽었다. 신문을 읽다 보면 최근 중요 이슈를 알게 될 뿐 아니라 기자가 사용하는 어휘를 익히고 문장 구조도 참고할 수 있어 좋은 공부가 됐다. 반수할 때 다니던 논술 학원에 집에서 꽤 멀어 지하철로 왕복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때 핸드폰을 보는 대신 신문 기사를 읽으며 시간을 절약했다.

“지원하지 않을 대학의 기출문제도 풀어볼 것”

논술고사는 대학마다 문제 형식과 원하는 답안 스타일이 다르다. 그러므로 논술로 지원할 대학을 정하기 전에 여러 학교의 기출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고 본인의 글쓰기 스타일과 얼마나 적합한지 확인한 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원하지도 않을 대학의 기출문제를 푸는 게 시간 낭비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혀 맞지 않는 대학에 지원해 수시 카드 한 장을 날리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이다. 또 여러 유형의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어떤 면에 장점이 있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 파악할 수 있어 이후 논술고사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도 했죠. 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에서 수행평가는 만점이었고 학생부는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완벽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내용이 충실했어요. 하지만 결국 높은 내신 성적을 받는 데는 실패해 수시 종합전형으로는 원하는 대학, 학과에 합격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도 3년 내내한 노력이 아까워 논술전형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지요.

Q. 논술과 수능 공부는 어떻게 병행했나?

반수를 결심한 후 유명한 논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첫 수업 때 ‘너 지금 소설 쓰니?’라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책도 많이 읽고 글쓰는 걸 워낙 좋아했기에 논술도 술술 써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게 실패 원인이었음을 깨달았죠. 그때부터 제시문을 읽은 후 꼭 포함해야 하는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고 최대한 담백하고 간결하게 쓰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대학마다 논술고사 문항 수나 시험 시간이 다르기에 한 문제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쓸지 미리 생각해두고 시간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도 꾸준히

히 했어요. 수능 준비는 인강을 활용했는데, 광운대를 비롯해 제가 주력으로 생각한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었기에 논술고사 준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Q. 후배들에게 해주고픈 조언이 있다면?

논술 준비를 하면서 도움을 받은 문구가 있어요. ‘달을 향해 쏘라, 빛나가도 별이 될 테니’ 라는 말인데요. 6장의 수시 카드를 쓰고 합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모든 곳에 합격하진 못하더라도 그중 하나만큼은 꼭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되뇌곤 했죠. 하루에도 수백, 수천 자의 글을 쓰는 데도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땐 ‘로또보다 어렵다’ 는 얘기가 떠올라 무척 힘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논술전형을 두 번 치러본 결과, 절대 운으로 좌우되는 전형이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경쟁률이나 주위 사람들의 이런저런 걱정엔 신경 쓸 시간에 한 문장이라도 더 써보고 기본부터 철저히 다져나간다면 반드시 노력의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